

最近 學生運動에 대한 省察과 指導改善 方案

A Plan to Examine and Guide Recent Students' Movement

高 永 友*
Ko, Yung-woo

目 次

I. 序 論	II. 指導 改善方案의 摸索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1. 青年學生에 대한 새로운 理解
2. 研究方法	2. 信念에 찬 教授의 指導
3. 研究期間	3. 學生指導 改善을 위한 몇 가지 構想
II. 最近 學生運動의 展開樣相	IV. 結 論
1. 學園 自律化運動과 그 省察	
2. 急進思想理論의 展開	
3. 學生運動의 過激한 樣相과 省察	

I. 序 論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우리나라 學生運動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日帝治下 抗日獨立運動을 비롯해서 해방 후 독재에 항거하고 불합리한 사회적 모순의 개혁이나 정치적 발전을 위해 그 운동의 규모나 양상을 달리하며 학생운동은 이어져 온 것이다.

'80년도 이후 學園自律化的의 追求와 急進的 改革을 주장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운동은 여전히 전개되고 있고 더구나 최근에는 학생운동이 過激한 樣相에까지 이르러 우리나라 大學歷史에 가장 심각할 정도로 학생운동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學者들에 의해서 과거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歷史的 考察이나 또는 학생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根源의 諸 要因의 분석과 時代的 背景에 중점을 두어 많은 研究가 先行되어 왔었다. 따라서 대학나름대로 學生指導의 效率的 方案도 여러차례 探索되어 왔었다.

* 學生生活研究所 相談指導部長 (專任講師)

2 學生生活研究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학생운동의 요인의 분석이나 해석에 중점을 두려는 것보다 학생운동의 脈을 짚어보고 또한 흐름을 감지하려는 데 관심을 두어 연구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最近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어떠한 脈絡속에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발생, 표출된 학생저항의 특성을 현실적 차원과 관계지어 이해하려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고 하고싶다. 왜냐면 오늘날 학생운동은 현실을 토대로 해결해야 될뿐만 아니라 대학생이기 때문에 大學에서 지도해야 할 當爲性이 있는 것이며 또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큰 도움이 있을성 있어서였다.

어느 時代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발전하는 단계에서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不滿이 생기고 이 불만들은 곧 抵抗意識으로 澎湃해질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過去를 신뢰할 수 있을때 긍지심을 갖게 되고 現在를 신뢰할 수 있을때 성실해지며 未來를 신뢰할 수 있을 때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한다.¹⁾ 과거도 현재도 또는 미래도 信賴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문제의 불만은 소재하고 저항의식이나 改革의 意志는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식이나 의지들이 진리의 탐구와 正義의 실현에 용감한 青年학생들에게 응집되어졌을 때 비로소 학생운동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운동은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目的이나 方法이 학생운동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을 때 학생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

한 個人的 바람직한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人材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이고 보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問題를 어떻게든 解決하려고 애써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생들의 옳은 생각은 현실적 수준의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設定하여 준다든가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은 발전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變化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日本 東京大教授 “高坂正顯”²⁾은 그의 著書인 「學生運動의 虛相과 實相」의 序言에서 “한 일 역사의 방관자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 학생운동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바라보고만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 실제 일선에서 大學教育을 담당하고 있고 더우기 이 나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너 나 없이 오늘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오늘날 학원가의 심각한 학생운동을 “피안의 불길처럼” 바라보고만 있을수는 없다. 학생운동의 深層에 깔려있는 문제를 깊이 照明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努力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本 研究는 마치 患部를 찾아 해매이고 최선의 處方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초조하고 골돌한 초년생 醫師처럼 學生運動의 환부를 診斷하고 處方하여보려는 데 研究의 意義와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보는 視覺에 따라 연구의 體系나 深度가 낮을 수 있고 또한 研究의 객관성이나 妥當性이 미흡한 느낌이 많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시도한 바는 최근 학생운동의 전개양상을 현실적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학생지도는 교육적 차원에서 그 지도자

1) 金裕赫, 外國의 學生運動 事例와 그 教訓, 전국 대학서어클 지도교수 세미나 주제발표문, 1984.7. 12~7.14, p.64.

2) 高坂正顯, (譯書) 學生運動의 虛相과 實相, 檀大出版部, 1984, p.8.

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하고 싶다.

2. 研究方法

최근 학생운동의 특성이나 전개양상을 성찰하고 이와 접근된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는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과 방법을 거쳤다.

- (1) 관심지도대상학생, 건전의식학생 100여명을 指示的, 非指示的 면담을 통해 의식수준을 파악하고 현실감각을 확인.
- (2) 최근 2년간 학생들의 교내외 미승인 유인물, 示威時 주요 주장등을 분석, 검토
- (3) 학생운동 및 지도에 관한 先行研究資料 수집, 분석
- (4) 학생지도를 위한 비공개자료(각종 회의자료 포함)를 수합 검토
- (5) 타대학 학생지도계획 및 지도사례 협의
- (6) 최근 2년간 학생소요 신문기사내용 분석, 참조
- (7) 학생시위시 현장지도 체험을 통한 시위성격 파악

3. 研究期間

本 研究의 期間은 1985년 3월부터 1986년 2월까지였다.

Ⅱ. 最近 學生運動의 展開樣相

우리들은 과거 學生運動에서 민족의 얼을 깨우쳐주고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定着시키기 위한 고귀한 犧牲들을 기억하고 있다.

1919년 2월 8일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6백여명의 학생들이 도오교에 모여 대한독립을 요구하는 抗爭의 示威를 전개했던 것이나,³⁾ 동년 3월 1일 애국시민들과 함께 잔학무도한 異民族의 압제에 대항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합성들이나, 1929년 11월 3일 「약소민족해방만세」, 「제국주의타도만세」, 「피압박민족해방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족적 투쟁을 전개했던 거룩한 광주학생운동⁴⁾들을 우리는 민족의 역사속에서 배우고 또한 알고 있다.

따라서 1960년 4월 19일 독재와 부패와 부정을 타도하고 나선 장한 학생의 희생에 자유당 정권을 퇴진시킨 승리의 감격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70년대에 이르면서 급성장한 산업사회가 안겨준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억압과 비리 등이 팽배한 국가현실에 도전하

3) 大世界百科事典, (歷史編), 太極出版社, 1973, p.522.

4) 上揭書, p.525.

여 이들의 改革을 주장해 온 순수하고 애국적 학생운동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와같이 슬한 학생들이 반세기를 거치며 싸워온 항쟁과 희생의 대가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의나 주장을 펴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 역사속에 기억되어온 과거 학생운동은 民族의 自主的 독립과 民主主義 실현을 위한 노력이었기에 민족적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또한 그 운동 전개과정에서 나라와 민족앞에 신명을 바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功利를 따지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고, 누구와도 결탁함이 없이 그 저항의식이 평화적으로 표출되었기에 국민적 공감과 호응이 있었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오늘의 학생운동에 만일 권력의지가 내포되어 있고, 환상적 기대만을 추구해지고, 목적을 위해서는 과격한 방법도 불사한다면 과거의 학생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최근에 학원가에 있었던 自律化運動을 비롯해서 일부학생이 誤導된 理論에 집착, 또한 과격한 형태로까지 학생운동은 전개되고 있어서 국민 모두가 심한 憂慮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問題들을 중심으로 省察하려고 한다.

1. 學園 自律化運動과 그 省察

1980년 새학기를 맞으면서 學園街는 자율화운동이 高潮되기 시작했다.

대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활동에 있어서도 자유로와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대학의 운영이나 학생과의활동도 大學自律에 맡겨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 제반 여건이 成熟되어 있고 大學人 모두가 自律能力이 있음에도 대학에 자율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저항할 素地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事理를 知覺하고 정리할 줄 알며 통할할 줄도 아는 소위 지성인이라 자처한다. 즉 事理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소년기가 아닌 靑年期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인간 발달단계로 보아 대학생은 청년기에 속하므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에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라고도 할수 있겠다.⁵⁾ 그러므로 지성인이라는 생각과 자율에의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노심초사 걱정아닌 간섭을 하고, 규정에 얽매이게 하고, 하고싶은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은 하나의 統制나 他律인 것으로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더우기 학교 밖의 타기관의 인사가 마치 학원을 監護區域인 양 관심이 쏠려진다면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야만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는 이것이야말로 학원에 대한 간섭이며 심지어는 학원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靑年期의 심리적 특성과 知性人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모여진 대학사회이기 때문에 학생회활동, 서어클활동, 언론활동 등 自律化를 추구했고, 이러한 운동은 대학마다 크고 작은

5) 姜昌赫 外 2人, 効率的인 學生指導를 위한 問題性向 分析研究, 學生生活研究,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3, vol.6, p.41.

학생소요의 형태로 번지면서 심각하게 전개되어 온 것이다.

학원 자율화를 추구해 온 학생집단의 근본의식이나 지향하는 목적에는 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너무 理想에만 치우쳐져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많았다. 설령 목적이 좋았어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서 과격한 점이 전혀 없었다고는 否定 못할 사실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학생집단에 의해 추구되었던 “自律”이란 의미의 객관적 참뜻은 무엇이었으며 학생들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떠한 형태로 추구되어 왔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學園에 自律化가 정착되기를 소망하게 됨은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學問活動을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추구되었다기 보다는 學生會活動, 서어클활동, 언론활동 등의 학생課外活動에 比重을 두어 追求해 진 느낌이 길다.

부연하면 학생과의 활동에 있어서 학교당국은 학생개성의 신장이나 발전적인 價値指向을 무시하고 일정의 「가드라인」범위에서 당국의 획일적 주도에 학생들은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集會, 討論會, M.T. 활동, 창작활동, 油印物제작 등 학생 자율적으로 치루려는 행사에 당국에선 과민할 정도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학교 당국에서의 지대한 관심은 학생교육을 위해 수행되는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소시민적 자제로 職務에 안주하려는 처사로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학교당국에서 제반 규정이나 制度上的 문제를 내세우면 이것이야말로 학생활동을 위축되게하는 분명한 간섭이며 억제하는 행위라고 학생들은 거부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학생교육을 위한 규정이나 제도 자체를 국가 체제유지를 위한 방법 또는 수단으로 매도하여 학교측과 학생간에 여러차례 충돌까지 빚은 사례도 있었다. 예를들면 과거 “學徒護國團” 기구는 대학의 기본적 사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하나의 위기조장을 통한 安保論理나 冷戰論理에 흡수된 전시체제기구”이기 때문에 학생 의사와는 관계없이 下向式지시 일변도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의사 수렴이 가능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學生會” 부활을 끈질기게 요구해왔으며 83년 12월 학원의 단계적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학생회 간부 피선거격 등 문교부의 5개 원칙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행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이 대학행정이나 운영에 관여하겠단가, 또한 학생으로서 교수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은 누구도 옳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은 곧 “聖域”이란 이유로 외부의 간여를 배척하며 학원의 자율을 주장하여 왔다. 이 말은 大學은 聖域이기 때문에 治外法權的인 곳이라고 해석할수도 있다.

大學은 社會, 國家, 人類의 변영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곳이다. 성역이기 전에 “상아탑”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간여할 수 없고 허물을 수도 없다. 설사 외부의 간여가 있다손 치더라도 대학운영의 기본적 입장이나 建學理念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흔들려서는 안된다. 어떤 타상급기관의 행정적 지침이나 협조의되는 대학 그 자체의 발전에 목적을 둔 것이라면 간섭이 아니라 指導이고 支援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大學의 상급기관은 다만 적능에 차이가 있을 뿐인 내부의 연장기관이지 외부의 기관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여하한 통치권의 행사도 그것이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이뤄지고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주적 수임행위일진대 이런것 모두를 간여라고 낙인해 버림은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 한다.

논지를 바꾸어서 「학원은 곧 聖域이다」라고 간주하자. 원래 聖域이란 말은 고색이 창연한 중세기적 대학사회에 걸맞는 말인데다 대학구성원 모두가 예문지 않은 순수함이 있어야 하고, 심오한 학문과 고매한 인격이 다듬어져야 하고, 섬광처럼 번쩍이는 엘리트의 慧眼이 모여진 곳이라야 성역을 강조하는 데 意味가 있다. 최근 극히 부분적인 지적이길 바라고 원인보다 방법 상에 나타난 일들이라고 하지만 대학사회에 한 때 도서관이 점거되고, 강의실이 파손되고, 각목이 휘둘러지고, 포연이 쏟아지고하는 그러한 곳을 성역이라 할 수 있을까. 和氣와 침묵이 감돌아야 하는 강의실은 市場처럼 무질서하고, 정서와 낭만이 감돌아야 하는 캠퍼스는 겨울처럼 살벌하고, 무엇인가 진지하고 정감이 돌아야 하는 연구실은 철창을 두른듯 고독한 그러한 곳을 보고 聖域처럼 인식해달라는 요구는 아무래도 부끄럽다.

또한 「학원은 성역이기 때문에 治外法權的 권리를 주장하거나 외부의 간여를 일체 배척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은 독선적 논리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질서는 원인보다 나타난 현상과 빚어지는 영향에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干與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간여한다면 옳지않지만 干與해야 될 상황임에도 이를 강건너 불보듯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권리의 포기요 교육의 放棄일수 있다.

학원 자율화운동으로 두드러지게 접근해왔던 배경이 또하나 있다. 학생활동 중에서 특히 서어클 활동에 自律性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어클활동은 취향과 관심을 같이하는 학생들끼리 폭넓은 교양을 쌓고 균형잡힌 인간이 되기 위해 소위 자율적, 자생적으로 조직된 학생집단임에도 그 활동에는 간섭이나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어클 활동을 통하여 大學의 文化創造에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自律이 許容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른바 大學文化가 가져다주는 즉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새롭게 하고 대학의 停滯를 극복시키는 발랄한 大學文化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서어클 참여학생들이 이와같은 주장이나 논리를 제시함에는 전혀 일리가 없는 제안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 서어클은 강의실이나 전공과목에서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同好人끼리 모여 연구하고 기량을 닦고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며 배우는 자율적인 학습단체이다. 다소 구속력을 갖고있는 정규적 교육과정 이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課外活動인 것이다. 이와같이 課外活動이기 때문에 서어클은 大學生活에서 本然의 활동인양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⁶⁾ 대학생

6) 漢大新聞, 1984.4.4 日字 “社說”

활에서 전공에의 지나친 편중으로 균형을 잃은 지식인은 바라지 않지만 지나친 과외활동으로 인해 근본을 잃어버린 학생생활은 더욱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한다.

아직 우리나라 대학은 정규활동을 하기도 충분치 않다. 특히 교수진, 시설면, 장서면 등이 선진 외국의 대학에 비하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이 가장 根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벅차고 어려운 실정인데 과외활동에 수반되는 충분한 여건 조성 내지는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보장을 해달라는 외침은 교육수행의 완급문제에서 그렇게 重要한 외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다. 더군다나 連帶意識을 갖고 있는 일부 서어클 학생들이 自己主張만을 펴므로써 專攻에 勉學하려는 다른 學生들을 다소라도 해쳤다면 이는 대학발전에 침체 또는 역행하는 결과가 招來되므로 오히려 自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다.

以上에서 80년대에 이르러 學園街에 불어닥친 학원자율화 운동이 발생하게 된 소지와 운동 양상의 事例的 考察을 중심으로 단편적이거나 살펴보았다. 84년 3월 이후 경찰이 학원에서 철수되고 학생회 부활, 학생의날 부활, 지도휴학제 폐지, 서어클활동의 규제 완화 등 단계적으로 자율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어디까지 이르러야 학원에 자율화가 定着되는 것인지 막연한 감도 있다. 단번에 크고 많은 것을 얻으려다 오히려 他律을 부르게 되면 어쩔까 하는 두려운 생각도 든다. 다만 學生이든 당국이든 “自律”이란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는 자가 정립될 때 自律化의 외침은 학원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보는 것이다.

自律의 辭典的 의미는 7) 일정 조직사회에서 정해져 있는 규범이나 道德律 속에서 제약받음 없이 스스로 행하고 조절하는 責任있는 행위라고 밝혀져 있다. 이러한 의미에 준하면 정해져 있는 규범이나 도덕률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자율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스스로의 행위를 책임질수도 없고 제어할수도 없는 상태에서의 자율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모든 規範은 正義를 보충하고 安全性을 指向하며 公益을 보호하는 데 기본입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은 사회적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한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8)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諸 規定이 있다. 學則을 비롯한 제반 규정은 편애, 편중, 편협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모든 機能이나 役割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학칙이나 제 규정이 있다. 또한 대학 나름대로의 不文律처럼 지켜져 내려오는 고유한 秩序와 傳統과 學風이 있다. 이러한 것 모두를 무시하거나 극히 일부라도 對 案없이 파괴하는 행위는 자율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소치일수 있겠다.

인간은 本質的으로 자율적인 존재로 태어났다고 한다. 9) 그러나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자율성

7) 신기철, 신용철, 새 우리말큰사전, 三省出版社, 1975.

8) 金裕赫, 준법생활의 基本精神, “새마을常識論”, 新陽社, 1985, p.273.

9) 李星台, 意思去來 分析的 人間關係訓練 프로그램의 構成을 위한 理論的 基礎, 指導相談, 啓明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4, vol. 9, pp.33 ~ 39.

이 상실되기도 하고 人間關係나 意思去來를 통해서 자율성은 회복되기도 한다. 원활한 의사거래의 소통은 자기를 肯定하고 타인도 肯定하려는(I'm OK, You are OK.) 혼련 속에서 이뤄지고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은 覺醒과 自發性과 親密性이 수반될 때 더욱 도타와지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만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거나 저마다의 각성과 서로의 친밀성이 없을 때 自律化는 요원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대학구성원 모두가 자유로운것만큼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쉽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自律化가 學園에 뿌리내리기를 期待해보는 것이다.

2. 急進思想理論의 展開

최근 急進思想理論들이 학원가 일부 학생들에게 만연되고 있다고 한다. 급진사상이론 중에서도 中南美와 低開發 第3世界의 현실을 背景으로하여 創出되어진 從屬理論, 買辦資本論 등은 근래에 와서 한국이 처해있는 경제상황과 同質性이 많은 것처럼 접근되면서 反外勢의 抵抗運動으로까지 응집, 표출되어가는 느낌이 있다. 그 예로 2년전 국가의 元首가 訪日, 訪美計劃을 발표했을 때도 극히 일부학생이긴 했지만 이를 否定的시작으로 보았던 것이나 근간 학생소요시 미국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口號들이 공공연하게 표출되었었음에는 70년대부터 우리에게 소개되어온 過激思想理論이 학생운동에 하나의 要因으로써 영향된 것이 아닌가 한다.

學問과 思想의 자유를 갖고 있는 大學에서는 급진사상이론에 대한 그 자체의 整合性을 심도 있게 研究할수도 있고 실제 그 妥當性이나 現實性에 비추어 비판할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自由國家이기 때문에 이러한 理論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책으로 읽을수도 있고 말로 들을수도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급진적 생각이나 탐구적 의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데 더욱 관심이 높아질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理論의 곁에서 풍기는 소위 [苦痛받고 있는 庶民大衆을 眞正으로 걱정하는 것같고, 後進國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음은 어디까지나 先進諸國의 책임이며 오로지 先進國을 排斥함으로써 후진국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¹⁰⁾라는 甘味로운 내용들은 최근 의식이 높은 학생들을 이러한 이론속으로 魅了시키기 쉬운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부 지식층이나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이론에 깊은 관심이 쏠려졌고, 많은 학생들이 반외세적 이슈로까지 부상되게 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이론이 生成하게 된 背景과 그 概念이 갖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 內容이 한국의 현실적 상황과 近似值가 있는가를 조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從屬(Dependencia)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그 국민의 희망과 의지 또는 필요에 부응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그와 관계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제나 국제경제의 동향에 의해 희생되는 것

10) T. Dos Santos,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0, No.2 (May 1970), p.231.

을 의미한다고¹¹⁾ 했다. 廉弘喆¹²⁾은 從屬理論의 根本問題를 논하면서 세계의 모든 국가를 二分法的 논리에 두어 中心國家와 周邊國家, 또는 從屬國家와 非從屬國家로 구분하고 종속국가는 비종속국가 즉 중심국가에 피착취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관계가 밀접할수록 착취는 더욱 심화되어 예속된 종속국가는 더욱 發展이 阻害된다는 理論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從屬理論은 1960年代 中南美의 經濟的 落後상태를 研究하는 학자들에 의해 맨처음 제시된 것으로서¹³⁾ 中南美의 發展理論으로 나름대로의 충분한 설득력과 까닭이 있다.

中南美의 여러국가들은 19세기 초반에 殖民地 支配로부터 벗어나서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 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심각한 經濟不安을 겪고 있다. 독립후 100년이 넘는 그들 나라지만 미국이나 유럽 여러나라들과 경제교류가 있어온지라 그들의 賦存資源인 鑛物資源과 1次産業生産物인 農産物 등을 歐美 선진 여러나라에 輸出했다. 그 대신 國內에서 소비되는 工業生産品은 先進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中南美의 여러나라들은 原料供給 국가이면서 製品 消費國이 되게 했을 뿐만아니라 수출하는 광물자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공업생산품을 수입했으므로 발전에 필요한 資本蓄積의 기회는 없고 과거 殖民地 시대와 똑같은 貧困을 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中南美의 악순환과 경제적 빈곤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비중을 外生的이라는 데 두어져서 西歐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현대적 자본과 기술을 후진국으로 확산하면 후진국의 경제발전과 近代化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산이론」을 부정하고 오로지 中心國家와의 脫從屬만이 落後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논리를 비약해서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弱小國을 侵奪하는 強大國을 배척하는 길 뿐이라는 강한 호소력을 가진 이론으로써 당초에는 중남미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생성되었던 것이 최근 제3세계의 後發國까지 파급된 것으로 안다.

위와같은 理論은 최근 고민하는 우리 大學生들에게 매우 그럴싸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왜냐면 이 이론이 갖는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는 일부 학생들에게 마치 우리의 현실적 상황과 비슷한 것처럼 비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한 나라가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것도 상호의존이 아닌 일방적 의존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민족의 자주적 경제권이 외세에 의해 억압당하거나 침탈당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격분할 수 있고 더구나 정의에 찬 青年學生은 이에 항거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오래 지켜보았고 가난의 고통을 자신의 경험으로 익혀온 일부 대학생들은 국가가 엄청난 外債를 지면서도 빌딩숲이 이뤄지고, 도로망이 거미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종속이론, “우리 현실과 좌경과격사상”, 1984, p.48.

12) 廉弘喆, 從屬理論의 根本問題, “大學과 思想”, 京郷新聞社 出版部, 1984, p.91.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從屬理論, 前揭書, p.43.

처럼 뽑아지고, 큰 공장이 들어서는 따위는 자기와는 無關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더구나 일부 高所得層의 분수에 넘치고 화려하지만 한 사치행각 등을 憎惡의 눈길로 쳐다볼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財伐들은 中心國家와의 밀착된 依存關係가 아니면 國家權力과의 결탁된 관계로만 비추어지고 매도될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재산의 차이, 능력의 차이, 교육 또는 훈련 기회의 차이 등 國民所得의 不均等分配를 초래하게 되는 근본적인 要因들이 있음에도 이를 생각하기 전에 資本主義體制의 모순이나 執權者의 민주적 통치력을 비방하고 나설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현실적 상황을 낱게하는 복합적인 요인이나 그 상황에 대한 냉철한 分析이 先行되기 전에 주어진 상황만을 自己中心的으로 判斷하고 이에 準據하여 행동한다면 여기에 再考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大學生들은 삶의 경험을 통한 思考의 客觀的 準據가 충분하지 못하다. 환언하면 한 국경제의 상황을 실제로 知覺해온지 20년도 안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상황을 지각해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실감하기 어려울수도 있다. 그런데다 바람직하지 못한 經濟行態의 일부에만 초점을 두어 照明하여진다면 中南美가 안고있는 심각한 문제처럼 從屬에의 敵意的 意識이 굳어지고 급기야는 反外勢的 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 농후하게 된다.

尹炳益¹⁴⁾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의 협조없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의 원료와 구매력 없이 선진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체를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선진국과 후진국은 착취, 억압 또는 종속관계라기 보다 공생관계 보완적관계로 받아들일수 있다고 하겠다.

이제 從屬보다 依存의 관계로, 依存보다 共生, 補完의 關係로 생각을 달리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단순한 종속이 아니라 相互依存의 관계에서 번영한 나라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더우기 세계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 경제와 無關하게 번영을 누릴수 없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最近의 學園街는 역시 종속이론의 한 부분으로 買辦資本論이 거론되고 있다. 항간에 일어났던 학생 示威에서 「매판자본, 매판경제는 척결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것을 기억한다. 이러한 口號가 서슴없이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背景이나 意義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買辦資本이란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租界나 開港地에서 외국상인에게 고용되어 일용품의 구입, 현금의 출납, 매매의 중개 등을 해주는 고용인의 자본운동양식에 유래된 용어로서¹⁵⁾ 民族資本에 대칭해서 쓰이는 말이었다. 근래에 와서 매판자본이란 용어는 19세기식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제3세계국가들이 중심국가인 선진국의 자본에 예속 또는 의존하면서 외국자본의 利益을 위해서 활동하는 資本이라고 얘기된다. 이 概念이 주는 것처럼 열강 외국자본의 압잡

14) 尹炳益, 民族解放論의 目標, “大學과 思想,” 京鄕新聞出版局, 1984, p.164.

15) 羅慶洙, 買辦資本論과 民族資本 形成, “大學과 思想”, 京鄕新聞出版局, 1984, p.95.

이가 되어 민족적 이익을 희생시킨 것이 매관자본이라고 한다면 그 本來的 성격은 反民族的 자본으로 간주되어 진다.¹⁶⁾ 따라서 매관자본을 종속이론과 관계지어 금융적 종속이 기술, 산업적 종속을 낳고 중심국가와 주변국가 간에 복합적인 종속관계를 초래한다는 논지를 비약시키게 한다.

우리나라에도 매관자본, 또는 매관정체를 云云하게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60년대 이후 공업화를 추진했고 이에 필수적인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을 중점 개발하였다. 동시에 국내시장이 좁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國民企業資本이 부족하고 국내 貯蓄額이 절대 부족하였던 우리로서는 外資導入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다.¹⁷⁾

外資導入의 불가피한 디렘마 속에서도 成長爲主의 정책은 國家經濟를 고도로 성장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構造的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外債로 인한 國民的 부담이 加重되었고, 일부 企業人들의 비윤리적이고 投機的 기업행위, 선진국 토착자본의 橫行, 일반 국민들의 사치풍조 및 과도한 소비성향의 팽배, 한탕주의적 일부 부도덕한 商行爲 등 국가, 사회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매관자본을 운운하게 된 또하나의 사실이 있다. 즉 일찌기 民族資本 형성이 안 되었다는 점이다.¹⁸⁾

한국은 과거 오랫동안 식민지 支配下에서 공업자본 대부분이 日本資本에 의해 主導되었고 심지어는 영세규모의 手工業, 家內工業 형태까지 일본자본에 예속된 채 존속되어 왔는지라 이 당시로서 민족자본 형성이란 엄두를 내기도 힘들었다. 그 후 8.15해방을 맞아 日本資本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하겠으나 국토와 민족은 양분되었고 6.25동란이 일어났고 技術人力의 근본이 될수있는 청장년층은 전장터에 나가야 했었고, 異質 서양문화의 급격한 流入으로 顛倒된 價値觀과 民族觀, 한때 美國의 무상원조에 의존하며 생존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민생의 질곡에서 헤어나질 못했던 것이다.

지난날 이렇게 참담하고 가혹한 역사적 상황을 거처온 우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自立經濟의 기틀이 될수있는 民族資本이 형성되지 못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第1次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리에 끝나고 對外的 공신력과 投資與件이 성숙되어 가면서 가능한한 內資動員을 최대로 하여 외자도입, 차관자금과 더불어 각종 基幹産業의 확충에 힘써온 것이다. 최근에 선진국 기업이 직접 또는 合作投資와 관련하여 多國籍企業이 성행되고 있어서 일부국민 사이에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은 부인 못할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

16) 羅慶洙, 前揭書, p.95.

17) 金贊鎮, 外資導入論, 一潮閣, 1982, pp.27~74.

18) 羅慶洙, 前揭書, pp.96~97.

다.¹⁹⁾

그러나 資本의 屬性은 利潤추구에 있다고 한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相互共榮보다 경쟁, 침탈, 착취 등의 개연적 사실을 낳기도 한다. 貿易交互國이 상호신뢰와 이해증진으로 경제적 향상을 기도하면서도 自國에 대한 得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경제현상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심지어는 이데올로기 국면까지 역학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예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유우방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중국 대륙이라는 거대한 市場을 향해 교역의 길을 탐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에 中東의 產油國들과 깊이 제휴하여 한국의 技術人力이 계속 그 나라에 투입되어지고 있었음은 상대국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自國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함이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

이와같이 자본이나 또는 기술이 갖는 속성과 국가나름대로의 利益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기 전에는 어느 한 理論에 매료되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동조함은 극히 위험함을 날계하고 오히려 問題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자체적 역량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학자들 가운데는 매관자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虛構性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²⁰⁾

첫째 매관자본이란 개념 자체가 계급의식을 강조한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레닌의 이론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중남미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종속이론의 한 부분을 이루어 생성발전해온 것으로서 근래의 한국실정과 동일선상에서 조명하려는 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지적되며

세계 모든 문제가 外生的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잘못된 경제개발정책에 자주적 반성의 기회가 상실되며 특히 나라의 성장과 개발의 요인에는 物的資源보다 오히려 人的資源이 重視됨에도 이를 거의 무시했다는 점 등 그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의식이 강한 일부 학생들이 종속이론이나 매관자본론에 심취해지고 특히 현재 중남미가 안고 있는 상황과 한국이 마치 同質性이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주장한다면 여기에 몇가지 相異한 점을 부연하지 않을 수 없다.

中南美의 여러나라들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農產物이나 工產品의 原料를 수출하고 공산제품을 수입해서 소비하는 나라들임에 비하여 한국은 농산물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업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美國, 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중남미의 여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은 非從屬국가의 대열에 걸수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또한 중남미의 여러나라들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貧富의 차가 심하다. 본래 資本主義國家에서 빈부의 差는 所得配分의 요인적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것이어서 均衡의配分을 위한

19) Ovaldo Sunskel, 從屬理論의 批判, “急進思想”, 1986, 全國大學(校) 學生課長 研修資料, p.44.

20) 한국정신문화원, 前揭書, pp.76~78.

課題를 안고 있다고 하겠으나 所得階層에 따른 소득의 분산분포를 보아 그 격차가 크고 작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分位分配率에 의해 한국의 下位所得階層 40%에 대한 국가총소득액에 차지하는 比率은 1982년 현재 18.9%에 이른다.²¹⁾ 영국(79년) 19.9%, 자유중국(81년) 22.6%, 서독(73년) 16.8%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소득계층간에 비교적 균등분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남미의 나라 이를테면 멕시코(77년) 9.9%, 페루(72년) 7.0%, 브라질(72년) 7.0% 등은²²⁾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한국은 식민지치하에서 해방된지 40년이 되었고 현재도 남북이 대치된 전시국가로서의 슬한 어려움속에서 경제는 성장했다. 이미 중진국의 문턱에 섰고 부분적이긴하나 기술능력이 선진국과의 경쟁관계에 이른 것도 있다. 중남미 여러나라들은 식민지에서 탈피한지 100년이 넘지만 아직까지도 低開發國家로 停滯되고 있음은 그 要因이 外在的인 것보다 오히려 국가내의 人力啓發 未洽, 先進國을 향한 국민적 의지결여 등 內在的 要因이 더욱 그들을 落後한 상태로 머물게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類推되게 한다.

류승국²³⁾의 주장처럼 원래 급진사상은 원한과 敵意의 소산이라고 한다. 怨恨과 적의를 담고있는 이데올로기는 가상적인 敵과 원수를 파괴시키거나 부정시키는 데는 능사였지만 보다 성숙하고 진전한 사회와 역사를 창조하는 데는 늘 무력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理論들을 앞세우기만 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노력이 집약되지 않는다면 문자 그대로 從屬 관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우리의 학원가는 조용한 날이 없다. 과격한 사상이나 과격한 행동들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아무리 순수하고 애국적인 운동도 어느 한계를 넘으면 오히려 “취를 잡으려다 독을 깨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까지 학원가에 만연된 급진사상이나 과격한 행동들은 하나의 교훈적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싶다. 그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기에 하는 말이다.

3. 學生運動의 過激한 樣相과 省察

學園에 自律化的 定着을 추구해 왔던 학생운동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機能과 使命을 다하기 위한 학생들의 순수하고도 발전적인 하나의 몸부림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학원의 단계적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의 학생들은 임의 교내집회와 學生示威가 오히려 많아졌다. 또한 主張이나 행동이 전에 보다 과격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시위학생들에 의해 교구가 파괴되는가 하면 대학의 행정부처를 난입하여 학사관계 서류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원내에 인질을 잡아 괴롭히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도서

21) 宋丙洛, 韓國經濟論, 博英社, 1984, pp.382~385.

22) 邊衡尹 外 2人, 經濟學概論, 韓國放送通信大學, 1985, p.222.

23) 류승국, 우리 현실과 좌경과격사상, 한국정신문화원, 1984, p.ii.

관이나 총장실을 점거하여 철야 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급기야는 대학교문을 나서 街頭示威를 벌였고 일부 공공건물을 점거하고, 파괴하고, 방화까지하는 극렬한 事態에까지 이르러 국내외적 걱정을 끼친 바가 여러차례 있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憂慮와 責任을 통감한 교수들은 決議文을 발표하고 대학생으로서의 냉철한 理性과 知性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바도 있었다.²⁴⁾

「우리는 최근에 발생한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하여 충격과 당혹을 금할 수 없으며 그것이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의 기본적인 활동인 수업을 방해하거나 대학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대학의 상징이며 연구의 심장인 도서관을 강점하는 행위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 (중략) … 대학의 이념은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개방적 태도에 의해서만 자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 1984.4.11.」

뿐만 아니라 일부 과격한 학생들의 폭력행위를 만류하는 교수들에게까지도 폭언을 퍼붓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음에 대해 학원내의 무질서와 폭력이 시정되지 않은 한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하고 대다수의 학생을 보호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로서 며칠간 강의를 중단하는 대학의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일반 市民들로부터 「大學生이라고 하여 特權이 있어서도 안되고 과격한 학생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등 진심으로 학생의 自治를 촉구하는 市民들도 있었다. 일부 건전한 학생들은 「학원이 戰場化 되어감을 매우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며 과격한 학생들을 나무라는 사례들도 있었다.²⁵⁾

이와같이 大學教授는 물론이고 일반 市民과 일반 學生들까지도 과격한 학생운동의 행태를 나무라며 스스로 自治해줄 것을 호소하고 촉구하여 왔었다. 그럼에도 학생운동은 날로 激化되어 갔다. 정부의 자율화 조치 이후 근 2년사이에 일어난 학원소요나 그 과격성은 엄청나다곤 하겠다. 任意集會, 示威, 籠城등이 學内外에서 무려 4000회가 넘었다고 하며 이에 동원된 학생숫자도 무려 100만명에 이른다는 報告가 있다.²⁶⁾ 특히 투석, 기물파손, 화염병 투척 등의 과격한 사례가 2000회수에 달한다는 사실은 人的, 物的, 時間的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85년 5월 70余名의 大學生이 美文化院을 점거하고 反美口號를 외쳤던 것으로 안다. 나름대로 여기에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곤 생각치 않는다. 그러나 美國은 우리와는 傳統的 友 互國인데다 과거 한국이 風前燈火같은 위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줬고 특히 수많은 靑年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려줬던 그들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報恩의 情을 느끼지 못할망정 도리어 반대하고 나설수가 있느냐고 反問할수 있음을 事大的 根性이라고만 나무랄 것인가. 하기는 美文化院을 점거하여 미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일

24) 中央日報, 1984. 4.12 日字

25) 文敎部, 自律化 以後 學園騷擾白書, 1985, pp. 247~256.

26) 文敎部, 上揭書, 1985, pp. 22~24.

부 학생의 행동이었다고도 한다.²⁷⁾ 그렇다면 강대국에 대한 진지한 도전이 아니라 누군가의 후원을 요청하고 또한 목적이 示威 자체에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약한 국민임을 인정하는 소치밖에 안된다.

항간에도 학생시위 때 “○○는 물러가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한다. 외쳐서 그들을 앞설 수 있었다면 4천만 동포가 벌써 하나되어 외쳤을 것이다. 진실로 그들에게 앞서려면 앞설 수 있는 길이 진정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이 탐색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實力을 쌓아야 될 것이 아닌가. 미국의 大學生活을 소개하는 新聞記事²⁸⁾에서 미국의 대학생들은 한시간 강의 받기 위해 3시간 준비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한 학기에 읽어야 할 독서량이 1만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밤낮 精進해도 우리에게 힘겨운 일인데 이래서는 점점 뒤질 수밖에 없다. 어느 대학에서 「깨어라 靑年이여! 네가 잠들면 민족이 죽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음을 안다. 진정으로 애국하려는 한국의 젊은 학생들은 남들과 제대로 견주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급하게 요청되고, 학생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을 끈질기게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신문이나 관계 자료에 따르면²⁹⁾ 학생운동의 전국적 조직과 광역화를 기하면서 “全學聯”과 “三民鬪委”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조직체의 주장이나 활동은 직접 학문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民生과 政治問題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조직체의 주장이나 행동의 결과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발전에 저해되고 利敵行爲를 낳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患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면 학생들이 학원을 뛰쳐나와 과격한 행위가 이뤄질 때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부정하는 急進勢力이나 좌경불순분자들이 이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그 한 예로 과거 프랑스의 학생운동을 들 수 있다.³⁰⁾

1968년 프랑스에서 교육제도 개혁이 동기가 되어 학생시위가 발생했다.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左派 急進改革主義者들이 이를 主導하여 일반학생들과 노동자를 선동하고 심각한 폭력사태로까지 몰고갔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후의 평가지만 이러한 학생시위 사태로 인해서 프랑스의 경제를 10년이나 후퇴시켰고 정치적으로 左派세력이 得勢하는 결과를 낳았었다고 당시 대학생으로 데모를 주동했던 「기바레」씨는 회고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그 당시의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이러한 사례들이 결코 남의 얘기로만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교훈적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외에 美國, 英國, 西獨, 日本 등 先進 여러나라에서도 학생운동이 있었다. 60년대에 발생하여 거의 60년대에 退潮했다. 그들의 운동에 있어서도 과격한 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

27) 京鄉新聞, 1985.10.3日字, “美文化院 事件訓戒 및 判決理由 要旨”

28) 世界大學 學生運動(2), 先進大學의 勉學熱氣, 濟州新聞, 1985.11.11日字.

29) 文教部, 前揭書, pp.40~45.

30) 世界大學 學生運動(3), 濟州新聞, 1985.11.12日字

다. 미국 비클리大學인 경우 수백명 경찰이 학원에 투입되는 사례³¹⁾가 있었고 日本 東京大學인 경우 과격학생에 의해 교수가 감금되고 전학년이 1년 유급하는 사례까지 빚었다고 한다.³²⁾ 적용된 바는 없었다고 하나 임시학원법을 제정하는 불행한 사례를 낳은 나라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그들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학생운동은 현재 우리와는 차이가 많다. 그들의 학생운동은 欲求以後的 운동이었고 일반적으로 學內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진통이었다는 점이 우리하곤 다르다. 民主, 民衆, 民族 등의 강한 정치적 의식이 깔려있는 그러한 운동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정된 분위기 속에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려는 보수주의적 국민성향, 대다수 국민이 학생운동에 대한 냉담한 반응,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안정된 국가기틀이 과격한 학생운동을 쉽게 제어하고 퇴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學生과 國民 모두는 깊이 알아야 할 것이다.

鈴木博雄³³⁾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학생운동형을 비교하면서 후진국 학생운동의 특성으로 ① 과격한 양상을 띠고 ② 정치활동에 제재를 가하려 하고 ③ 시위세의 확대를 위하여 학생외 사람을 끌어들이려 하며 ④ 사회 경제, 문화 등 제영역에 걸친 改革주장을 보다 많이 제시한다고 했다. 선진국에 비하면 후진국일수록 改革의 영역이나 개혁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 또한 政治的 현실과 비전이 일반 국민생활과 깊게 관계지을 수 있으므로 학생 이전에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크게 미칠수도 있는 것이다.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현실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에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다. 비판은 의식을 굳혀주기도 하고 강직된 의식은 행동으로 表出되기도 한다. 또한 무분별한 행동이나 영웅적 심리가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될수도 있고 순간적 자극이 폭력적 행동으로 誘發할수도 있다는 것을 다같이 명심해야 될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 학원소요가 한창일 때 아이젠하워는 「靑年들에게 바란다」는 글에서 “나라의 운명은 앞으로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때문에 제군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폭력이 그들의 수단이 되었을 때 마지막을 고하는 것이 된다. 우리들은 민주주의적 사회에 살고 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평화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길이 열려있다. 건물을 파괴하거나 대학을 봉쇄하거나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민주주의적 항의에는 질서와 규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분쟁을 일으키려는 무리들이 여러분의 교육받을 권리를 뺏으려고 할 때는 일어나서 자신의 주장을 밝혀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1969.3.28日 Readers Digest 誌)

오늘날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교육받을 권리를 뺏으려고 하는 자는 없다. 있어서는 결코

31) 金東一, 産業社會에서 學生運動의 特性에 대한 照明, “學生生活研究”, 梨花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第20卷, 1984, p.8.

32) 金裕赫, 日本學生運動의 特性과 그 退潮要因, p.22.

33) 鈴木博雄, 學生運動 — 大學의 改革か 社會의 改革か, — 福村出版社, 1968, p.283.

안되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 대학교육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국민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경주되고 있는 줄 안다. 그럼에도 大學教育의 制度나 機能의 수행에 모순이 발견되어 이의 개혁을 위한 순수하고 평화적인 노력에는 공감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목적도 방법도 학생의 신분을 逸脫했다면 마땅히 힐책받아야 할 것이다. 目的이 좋으면 方法도 좋아야 한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폭력으로 이룩하려 하면 누구도 옳다고 않을 것이다. 더구나 학생운동에 權力意志가 내포되어 있고 테러리즘이 있다면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잃게 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大學生 모두는 계급이 아니라 신분이다. 그러므로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자기들만이 정의에 살고 자기만이 나라와 民族의 將來를 걱정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큰 잘못이다. 오히려 일터에서, 도서관에서, 전선에서, 땀과 눈물과 침묵으로 몸소 愛國하는 청년들이 더 많이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애국은 말로써 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개혁은 나서서 주장하는 것보다 조용히 자기 職分에 충실하는 것이 더 큰 개혁이 될 수도 있기에 하는 얘기가.

Ⅳ. 指導 改善方案의 摸索

지난 수년간 학원의 안정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자체는 물론 國家, 國民의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現今까지 학원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退潮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잔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大學에서는 학생지도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나름대로 끊임없이 집중되었음에도 그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하고 생각할 때 스스로 막중한 책임과 반성을 하게끔 한다.

많은 學者들 가운데는 大學生의 문제를 낳는 그 背景이나 要因을 大學生이라는 青年 發達 段階上의 특성으로 문제를 照明하여 이러한 문제의 이해와 解決이 곧 學生指導를 위한 切徑인 것으로 논지를 펴는 분도 있다. 또는 한국이 안고 있는 政治, 社會, 文化 등 국가의 현실적 모순이나 大學社會가 안고 있는 諸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學生運動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하고 學生指導의 焦點을 여기에 맞춰보는 指導方案들도 있다. 모두 바람직하고 效率的인 생각이다.

그러나 最近 1, 2년간 學生들이 펼쳐온 學生運動 樣相을 深度있게 투시해 보면 단순하게 學生을 理解하고 指導하려는 姿勢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의 學生運動은 그 나타난 性格으로 보아 現實的으로 解決可能한 次元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테면 「학생복지시설을 개선해달라」, 「무능한 교수는 사퇴하라」, 「외부에서 학원을 왜 간섭하느냐」하는 식의 차원은 이미 벗어나서 學生들의 생각하는 소위 理想的의이고 幻想的 기대의 국가건설을 目標로 意識을 設定하고 鬭爭이란 方法으로 目標를 향해 向

進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않아 많다.

어쩌면 이와 같이 學生意識이나 행동이 극렬하게 감지되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긴박효과나 대응요법적인 응급책을 가지고서 學生指導에 임하기는 너무나 無力한 것 같고 대학인 모두가 束手無策인 것 같은 생각도 없지않아 있다.

그러나 딱한 자식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처럼 學校側은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師弟의 관계에서 아무리 과격한 학생도 영원히 멀쳐버릴 수도 없는 솔직한 심정이다. 여기에 대학은 갈등과 고민이 있는 줄 안다. 그렇지만 指導는 教育的機能에 바탕을 둔 概念이고 보면 指導의 포기는 教育의 포기일수 밖에 없다. 教育의 포기는 나라의 將來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대학 나름대로 最善의 處方을 찾고 꾸준히 지도해야 하겠기에 추상적이지만 다음의 몇가지로 학생지도를 위한 方案을 탐색하여 보려는 것이다.

1. 青年學生에 대한 새로운 理解

大學生은 父母로부터 支援과 保護를 받으면서 한편으론 父母의 의존에서 벗어난 특수한 過渡期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時期는 정신적으로 무책임할수도 있고 浮動的인 상태이면서도 앞으로 직장생활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時期라고도 할 수 있다.³⁴⁾ 또한 그들은 生活空間이 확대됨에 따라 父母와 教師外의 각양각종의 權威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自身의 判斷에 준해서 行動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졌기 때문에 自主的이고 自律的인 欲求가 강해진다 고 한다.

그러므로 青年學生들에게 自律的 行動의 欲求가 許容되지 않거나 오히려 壓迫받는다고 생각 되었을 때 불만의 소지는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강의실이나 서적을 통해서 正義, 自由, 平等, 平和 등을 누릴 수 있는 가장 理想的인 社會와 國家를 배우게 된다. 이와같이 인지된 것들을 實踐에 옮겨보려는 確固한 意識이나 行動意欲이 어느 世代보다도 強한 것이다. 그럼에도 實際 行動으로 옮기려 할 때 장애되는 要素가 부닥쳐 좌절하게 되고 더구나 既成社會에서 일어나는 自己들의 理想과는 너무나 괴리된 행위가 그들에게 비쳐질 때 이에 대한 不信은 회의와, 불만 그리고 분노에 빠질 수 있게까지 한다.³⁵⁾ 韓駿相³⁶⁾의 研究結果에 의하면 「한국사회에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愛國者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애국자일 수 있다고 단호하게 價値判斷을 내린 응답자는 80.1%를 차지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겠다.

또한 青年 學生인 경우 신체적으로 成熟되고, 독립할 수 있지만 의욕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34) 베르너 호프만, 대학·이데올로기·사회 — 대학의 위기·사회적 책임·저항 —, 季刊京郷 思想과 政策 (여름호), 경향신문사, 1985, vol.2, No.3, p.85.

35) 金東一, 前掲書, p.20.

36) 韓駿相, 韓國大學教育의 犧牲, 文音社, 1983, p.169.

서 個人的 또는 社會的 挫折의 經驗을 하게 된다. 이와같이 動機意欲이 심하게 挫折당했을 때 분노와 심한 공격행위를 招來할 수도 있다고 한다.³⁷⁾

뿐만 아니라 고도의 産業社會가 주는 人間의 소외감, 自由와 平等間의 긴장과 괴리, 階層間의 隔閡, 현세영합적인 價値指向, 未來自身에 대한 不確實性 등 젊은이의 예리한 눈에 걸리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³⁸⁾ 한편 自身을 역사적, 社會的 狀況에 놓고 자기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하고 확고한 방향감이 없이 苦悶하는 세대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正體危機에 直面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단순히 被教育者라는 면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극히 前近代의이고 觀念的인 선에서 평가하고 소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식의 과거 修身教科內容만을 끄집어 내어 젊은 大學生을 指導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生의 個性, 취향, 의식, 指向性 등 綜合的인 분석과 판단이 세워지고 이를 토대로 充分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는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信念에 찬 教授의 指導

鄭範謨³⁹⁾에 依하면 教育은 人間行動을 다루고 그 變化에 關心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民主主義建設, 民族文化 創達, 政治的 近代化, 經濟的 發展 등 관심이 될수 있는 것들은 知識이나 技術이나 思考 등의 人間行動으로 “翻譯”될 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서 人間의 行動自體보다도 바람직한 方向으로 그 對象이 育成되고 교정되고 改善, 變化될 때 教育의 價値는 있는 것이라고 한다. 大學은 언필칭 教育하고 研究하고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知性的 共同體로서의 大學은 研究보다는 교수 (teaching)가 重視되는 곳이라야 한다고 주장되는 理由도 무엇보다 人間行動을 바르게 다뤄야 할 重要함이 있기 때문인 성 싶다.

대다수의 學生들이 大學教育을 社會的地位, 文化的 소양, 성공적 삶에의 誘導因子라고만 판단하고⁴⁰⁾ 소위 출세의 수단적 상징으로만 생각하려는 모순을 과감하게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엘리트 의식이 가져다 주는 소위 자기 생각만이 옳고 자기만이 社會正義를 위해 헌신하고 설령 과격한 행동을 했어도 大學生이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든 생각울 가진 학생들을 과감하게 시정,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知性的 研磨는 大學教授에 의해 培養되어야 하고 大學도 곧 人間의 行動을 다루는 教育의 場所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간에 學生指導에 問題點이나 소홀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趙鑄涉⁴¹⁾의 지적처럼 大學教育에서 지식전달 위주에 치우쳐 전인적 人格形成에 소홀한 점이 있고 研究나 수업시간의

37) 金仁子譯, 適應心理 — 變化하는 世界에서의 個人成長 —, 正民社, 1985, p.71.

38) 韓先相, 現代 젊은이의 挫折과 熱望, 培英社, 1984, p.181.

39) 鄭範謨, 教育과 國家發展, 教育出版社, 1985, pp.12~18.

40) 韓駿相, 前揭書, p.229.

41) 趙鑄涉, 學生指導의 方向과 對策, — 學園事態를 中心으로 — 大學發展을 위한 教授세미나 主題 發表論文集, 1981, pp.353~376.

부담으로 形式的인 指導에 임해졌었다는 점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너무 學生指導에 熱中하다보면 학생들에게 “어용교수”처럼 매도되어 교수의 권위가 추락되고 이로 인해 신상이나 교육적 효과를 두려워한 점도 전혀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한 예로 “해직교수의 말은 髒言이고 보직교수의 말은 髒言이다”라는 얘기가 일부 學生들 입에서 떠올리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다소 일리가 있다.

大部分의 學生이 교수와의 對話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지만⁴²⁾ 특히 문제학생일수록 교수와의 대화하는 것을 기피한다. 그런데다 평소에 對話가 이뤄지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발생의 中心인물일 때는 더욱 關心을 갖고 의도적인 대화를 要求할 때 學生들은 거부반응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설사 對話가 이뤄졌어도 이미 학생 나름대로 價値決定이 된 이후여서 指導效果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다. 더구나 한종열⁴³⁾의 지적처럼 學生指導에 자연스럽지 못할 때 지도를 받는 學生은 죄인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學生에 따라서는 오히려 영웅심을 助長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問題學生이나 問題行動에 대한 훈육적 관계는 이미 지났다. 모든 교수가 확고한 교육적 信念을 갖고 가슴으로 學生들을 지도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힘들게 되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문제를 지닌 學生은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教育이고 보면 문제학생을 끝내 타부시해서도 안된다. 더우기 선입관 하나만을 가지고 문제를 보거나 문제 이외의 것까지 유추해버리는 생각은 극히 위험한 것이라고 한다. 무섭기 때문에 조용해지는 것은 一時的일 수 있다. 무섭지도 않고 부담도 없는 대화의 통로가 교수와 학생간에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學問을 같이하는 동반자로 또는 현실적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對話는 文化的 相互作用이라고 한다.⁴⁴⁾ 오랜 침묵, 깊은 애정의 빛도 대화의 효과를 준다. 學生에 대한 個性과, 환경과, 건강과, 未來 등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져줄 때 學生은 인정감을 받게 되고 自信을 얻게 될 것이다.

교수는 강단에서 충실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학생지도는 강단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강단에서 존경과 권위가 실추될때 학생지도는 불가능한 것이다. 애국, 애교한다고 하자. 그것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의지와 진실된 마음,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하고 自己利益을 버리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애교도 애국도 되는 것이다.

지난 60년대 한·일 외교 반대시위가 있었을 때 데모하는 학생 군중앞에 들어누어 “내위를 밟고 지나가라”고 했던 어느 고등학교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대학에 있는 교수와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노력할 때 아무리 과격화된 학생운동도 점차 퇴

42) 康順善 外 3人, 教授-學生의 人間關係 定立에 關한 研究, 學生生活研究,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5, vol.7, p.28.

43) 한종열 외 6인, 學生指導의 効率化 方案, “學生指導研究”, 慶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vol.15, No.1, p.26.

44) 韓駿相, 前揭書, p.224.

진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해 보는 것이다.

3. 學生指導 改善을 위한 몇가지 構想

가) 건전한 서어클을 計劃的으로 育成해서 건전한 의욕과 정열을 발산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다.

대학마다 관심이 쏠려지는 몇 개의 서어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운동에 항상 중심이 되고 언제나 “치매증”처럼 따라다니는 회원들이 많기에 그렇다. 그러나 서어클 가운데는 목적 그대로 건전한 활동을 하는 서어클이 더 많다. 이러한 서어클을 본보기가 되도록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나) 학생활동을 學會中心으로 勵行되도록 권장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金裕赫⁴⁵⁾의 提論처럼 학회는 學究의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授業延長 또는 勉學風土造成이라는 데 의미가 깊다. 특히 학회활동은 교수의 지도기능이 深度있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본연의 활동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다) 대학은 지도교수의 公信用을 얻을 수 있고 교수로서 비중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모든 권한이 頂點에 응집되면 문제해결의 답을 정점에서 얻으려 하고 공격목표도 정점만이 되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큰 문제처럼 확산되어 버리기 쉽다. 따라서 지도교수 중심 지도체제의 확립은 敎權의 신장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다.

라) 문제를 엄폐하여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감춰진 것일수록 캐고 싶어한다. 학생관심의 문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학생들의 큰 “이슈”가 될성 싶은 문제영역은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수나 전문인사를 모시고 토론회, 간담회 등을 미리 계획적으로 개최하여 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며 誤導된 감정이나 意識을 미리 치유해 보자는 것이다.

마) 학생지도를 위한 국민적 대책위원회의 조직, 활동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왜 만사를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느냐” 하고, 당국에선 긍정적인 측면만을 내세우면 하나의 權利와 權威에 대립되는 결과 밖에 안된다. 모든 것은 서로 併行하며 조화를 찾아야 매듭이 풀린다. 그러므로 與·野政治人, 宗教人, 企業人, 言論人, 敎授, 勞動者, 學父母 등 사계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중심으로 指導對策(研究)委員會를 거국적으로 조직하고 韓國 學生運動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엉킨 매듭을 풀어보려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45) 金裕赫, 自治會와 그 活動指導 方案, 壇國大 全體敎授 研修資料, 1985.

바) 多數의 학생을 보호하고 더욱 이들에게 관심이 깊어져야 한다.

소위 運動圈 학생들은 소수이면서도 민주사회에서 민주학우의 의견을 거의 無視당해야만 되느냐고 하기 쉽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의견이 多數의 학생의견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학생운동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학생은 1% 미만이라고 한다. 전체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도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면 어진 양처럼 착한 대다수의 학생에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작은 것으로 인해 큰 것이 희생될 때는 불가피하게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소수의 학생들을 위하는 길도 되기 때문이다.

Ⅳ. 結 論

어느 時代 어느 나라든 青年學生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理想의 실현을 애써왔고 기성질서나 권위에 반항해 왔다. 더구나 민족의 生存權과 自主權이 침해당하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이에 항거하고 국가와 민족 앞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애썼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3.1 운동, 광주학생운동에서 보듯이 민족의 주권과 자주독립국가로서의 自由를 찾기 위한 거족적 抗日運動에 청년학생들은 앞장섰던 것이다. 또한 4.19의 장한 청년학생들은 이 땅에 고귀한 민주주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학생들의 장한 항쟁이 이어질 때 자유는 얻어지고 따라서 그들의 순수하고 정의로운 意識이 살아 숨쉴 때 부정과 부패와 독재는 발붙일 수 없다는 교훈을 이 땅에 심어줬던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안고 오늘을 사는 학생들은 과거 학생운동에서 순수한 희생과 투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價値를 국가발전으로 승화시키려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젊은 학생들은 不義에 타협하지 않고, 安住하려는 者 용서하지 않고, 理想을 향한 개혁의 의지가 어느 세대보다 강한 것이다. 그러기에 젊은이는 나라의 보배요, 希望이라고 얘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理想이 클수록 현실을 否定하기 쉽고 個性이 강할수록 獨善에 치우치기 쉬우며 욕망이 클수록 불만이 많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너무나 秩序指向을 고집하면 발전이 느릴 수 있고 너무나 改革指向을 추구하면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革命的 改革의 필요성은 국가, 사회의 제 모순이 비등점에 왔을 때 절실한 것이고 국민적 聲援이 모아질 때 그 改革은 가능한 것이다.

최근 학원가의 일부 학생들은 자기 주장만이 옳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 심히 과격한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은 학생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 장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가를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면학하려

는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결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다.

事物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황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흑백논리나 극과 극의 얘기는 있을 수 없다. 어떠한 문제도 調和가 이뤄지지 않은 대립적 관계에선 풀리지 않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도 안되고 고집 자체를 타부시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 과격한 학생운동도 對話의 채널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미국의 남북 전쟁 후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으로 神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를 굳건히 믿으면서 우리가 착수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링컨의 말처럼 모두가 聖者의 마음으로 모두가 柔強한 자세로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를 익혀야 한다. 더구나 오늘에 걱정되는 모든 問題가 人間이 낳는 人間의 모순이기에 人間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 최근과 같이 과격한 학생운동은 사라질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昌赫 外 2人, 效率的인 學生指導를 위한 問題性向 分析 研究, 學生生活研究,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3, Vol.6, 9 ~ 123.
- 康順善 外 3人, 教授-學生의 人間關係 定立에 關한 研究, 學生生活研究,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5, Vol.7, 1 ~ 55.
- 金景嬉 外 2人, 教授와 大學生間의 價値觀 比較研究, 學生生活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4, Vol.7.
- 金基燠, 第3 世界의 理解 — 東南亞 民族主義와 反日運動, 形成社, 1983, 129 ~ 139.
- 金東一, 産業社會에서의 學生運動의 特性에 對한 照明, 學生生活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4, Vol.20, 5 ~ 24.
- 金武吉 外 2人, 大學生의 性格 特性 및 生活環境 變因과 進路計劃의 相關研究, 學生生活研究, 全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4, Vol.12, 939 ~ 956.
- 金武吉, 大學生 問題에 關係되는 要因에 關한 研究, 學生生活研究, 全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76, Vol.5, 251 ~ 264.
- 金仁會, 分斷時代의 克服과 韓國教育의 向上, 思想과 政策, 京鄉新聞社, 1985, Vol.2, No.3, 151 ~ 161.
- 金裕赫, 外國의 學生運動 事例와 그 教訓 — 日本事例를 中心으로 — 第3次 學生理念 指導를 위한 全國 大學서어클 指導教授세미나 主題發論文, 1984.7.12 ~ 7.14.
- _____, 日本學生運動의 特性과 그 退潮要因
- _____, 學生指導의 成果提高方向, 勉學界團氣 造成을 위한 教授研修會 基調演說文, 檀國大學校, 1982.2. 15 ~ 2.20
- _____, 勉學與件 造成의 一方案, 全國大學(校) 教務處(課)長 協議會 主題發發表資料, 1985. 7.11 ~ 7.13.
- _____, 준법생활의 基本精神, 새마을常識論, 新陽社, 1985, 273.
- 金仁子(譯), 適應心理 — 變化하는 世界에서의 個人成長 — 正民社, 1984.
- 金俊秀 外 1人, 大學生의 意識構造 및 價値觀에 對한 調查研究, 學生生活研究, 慶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Vol.8, 29 ~ 51.
- 金贊鎭, 外資導入論, 1982.27 ~ 74.
- 金泰吉,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 儒教思想과의 比較研究 —, 一潮閣, 1983.
- 金學俊, 第3世界의 理解 — 新生國 이데올로기의 試鍊 —, 形成社, 1983, 11 ~ 20.
- 羅慶洙, 買辦資本論과 民族資本形成, 大學과 思想, 京鄉新聞社出版局, 1984, 94 ~ 99.

- 류승국, 우리 現實과 尙殘過激思想, 韓國精神文化院, 1984.
- 柳俊秀, 마르크스主義와 그 批判, 學生生活研究, 漢陽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5, Vol.3, 81 ~ 96.
- 文教部, 大學發展을 爲한 教授세미나 主題發表論文集, 全國大學(校) 學生處(課)長 協議會, 1981.10.29 ~ 11.5.
- _____, 自律化 以後 學園騷擾白書, 1985.7.
- 朴鎮玟 外 2人, 大學生 問題意識의 社會的, 心理的 決定 要因에 關한 探索的 研究, 學生生活研究, 全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3, Vol.11, 837 ~ 865.
- 베르너 호프만, 大學·이데올로기·社會——大學의 危機·社會的 責任·抵抗——, 思想과 政策, 京鄉新聞社, 1985, Vol.2, No.3, 65 ~ 99.
- 邊衡尹 外 2人, 所得分配, “經濟學概論”, 韓國放送通信大學, 1982, 219 ~ 225.
- 徐洗善, 오늘의 大學 현실을 解剖한다, 新東亞, 10月號, 1985, 410 ~ 419.
- 徐昌源 外 1人, 大學生들의 未來意識에 關한 調查研究, 學生生活研究, 忠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5, Vol.12, 31 ~ 63.
- 宋丙洛, 韓國經濟論, 博英社, 1984, 382 ~ 385.
- 宋俊秀, 在學生의 意識에 關한 調查研究, 學生生活研究所報, 慶尙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4, Vol.10, 1 ~ 16.
- 廉弘喆, 從屬理論——低發展의 政治經濟學——, 法文社, 1981.
- _____, 從屬의 克服, 풀빛, 1983.
- _____, 從屬理論의 根本問題, I·II, 大學과 思想, 京鄉新聞社出版局, 1984, 85 ~ 93.
- 吳世德, 大學生의 國家, 社會觀에 關한 調查研究, 學生生活研究, 慶熙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3, 創刊號, 15 ~ 44.
- 尹炳益, 民族解放論의 目標, 大學과 思想, 京鄉新聞出版局, 1984, 164.
- 李奎浩, 우리 教育의 革新과 發展, 培英社, 1984.
- 李大雨, 大學生의 急進性向과 示威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分析, 研究報, 釜山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4, Vol.20, 57 ~ 73.
- 李明子, 大學生의 大學認識의 現實性——設問의 「自由反應」란에 自由記述한 內容의 分析——, 學生指導研究, 慶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78, Vol.11, No.1, 33 ~ 43.
- _____, 大學生의 問題에 關한 調查研究의 批判的 考察, 學生指導研究, 慶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3, Vol.13, No.1, 51 ~ 60.
- 李星台, 意思去來 分析의 人間關係 프로그램의 構成을 위한 理論的 基礎, 指導相談, 啓明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4, Vol.9, 33 ~ 39.
- 李永鎬, 韓國人의 價値觀, 一志社, 1977.

- 李元浩, 스튜던트·파워에 대한 諸見解, 研究報, 釜山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69, Vol.6, 23 ~ 43.
- 李在五, 解放後 韓國學生運動史 - 1945 ~ 1979 -, 形成社, 1984.
- 李楨九, 從屬理論의 批判 및 評價, “大學社會와 이데올로기”, 大學이데올로기 批判教育教授 協議會, 1984, Vol.1, 153 ~ 162.
- 李鍾昇, 大學生의 價值意識에 關한 調查研究, 學生生活研究, 忠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0, Vol.5, 1 ~ 19.
- 李炯得, 李星台 共譯, 人間關係의 改善과 治療, 中央適性研究所, 1982, 51 ~ 69.
- 李炯得, 大學生 指導의 理論的 背景과 最近動向, 指導相談, 啓明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Vol.7, 1 ~ 14.
- 李興九 外 2人, 韓國大學生의 意識構造에 關한 研究, 學生生活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4, Vol.14, 3 ~ 54.
- 林熺燮, 産業社會와 高等教育의 大衆化, 思想과 政策, 京鄉新聞社, 1985, Vol.2, No.3, 65~99.
- 鄭範謨, 價值觀과 教育, 培英社, 1984.
- 鄭範謨 外 1人, 教育和 國家發展, 教育出版社, 1985.
- 鄭寅錫, 現代青年發達心理學, 서울, 載東文化社, 1977.
- 濟州新聞, 世界大學 學生運動, 1985.11.11 ~ 12 日字
- 韓完相, 現代 젊은이의 挫折과 熱望, 培英社, 1984.
- 한중열 外 6人, 大學學生指導 效率化 方案, 學生指導研究, 慶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Vol.15, No.1.
- 韓駿相, 韓國 大學教育의 犧牲, 文音社, 1983.
- 黃應淵, 大學生의 價值觀 및 關聯된 變因에 關한 研究, 益文社, 1975.
- 許鐵洙 外 3人, 濟大 學生生活 指導의 改善方向 探索, 學生生活研究,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Vol.5, 1 ~ 36.
- 高坂正顯 (檀國大 大學文化振興委員會譯), 학생운동의 虛相과 實相, 檀大出版部, 1984.
- 鈴木博雄, 學生運動—大學의 改革과 社會의 改革—, 福村出版社, 1968.
- Abraham H.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Y., Harper and Row Publishers, 1954.
- Erikson, E.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959, No.1,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Rickey L.George, “Theory, Methods, and Process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1981.

Robert L.Gibson / Marianne H.Mitchell, "Introduction to Guidance", Macmillan Publishing Co.Inc., 1981.

T.Dos Santos,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No.2, (May 1970), 231.